

지역문학사의 서술 대상론

김 병 택*

차 례

- I. 프롤로그
- II.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
- III.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닌 지역문학
 - 1.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학
 - 2. 특수성을 지닌 지역문학
 - 1) '개인의 발화'로서의 서정시와 상징되는 자연
 - 2) 전체·문학으로서의 서사와 일반화되는 이야기
- IV. 에필로그

I. 프롤로그

문학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처음에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일찍이 르네 웰렉이 제기했던 것, 즉 문학이면서 동시에 역사가 될 만한 문학사를 쓰는 것은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에 대한 답을 미리 말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우리는 대부분의 문학사가 사회사이거나, 혹은 문학에 예시된 사상의 역사이거나, 혹은 특정한 작품들에 나타난 인상들과 판단들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다소간 연대기적인 질서로 배열해 놓은 역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그러한 문학사를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의 한 예로는, 문학사는 궁극적으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학사가 온전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사보다 문학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점을 들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문학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가 강조되면 문학이 약화되고, 문학이 강조되면 역사가 약화된다는 데에 동의하게 된다. 그것은 역사와 문학이 판이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역사의 실체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드러나는 데에 비해, 문학의 실체는 작품 그 자체에서 각각 드러나는 데에서 기인한다.

문학사를 서술하는 데에는,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¹⁾도 있다. 그것의 첫째는 문학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학사에서의 문학 작품에 대한 논의는 과거의 수사학적 기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둘째는, 문학사의 성립은 문학 이외의 다른 인간 활동에 의해 인과를 해명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편견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학사의 성립은 그러할 때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는 문학사의 개념이 문학 작품 이외의 다른 요소들과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회화사나 음악사에서, 그것의 사회적 측면, 화가나 음악가의 전기적 측면에 따른 판단과 전혀 무관한 회화사(예를 들면, 연대순 혹은 유파에 따라 작품이 진열된 화랑에서의)나 음악사(예를 들면, 작품이 연대순으로 연주되는 음악회에서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문학사에서 그것의 사회적 측면, 작가의 전기적 측면과 분리된 문학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학사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움들

1) 르네 웰렉·오스틴 위렌, 『문학의 이론』, 이경수 역 (문예출판사, 1992), p. 378 참조.

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범위를 지역문학사로 좁혀 생각할 때에는 사정이 약간 달라진다. 지역문학사의 서술 대상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일반 문학사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지역문학사에서 지역문학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 글의 의도는, 지역문학사는 한국문학사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지역문학사가 마땅히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문학을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학, 특수성을 지닌 지역문학으로 나누고 그것들의 성격과 요건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II.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²⁾

지역문학사가 서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히 지역문학이다. 그런데 그 지역문학은 지금까지 통용되던 개념으로서의 지역문학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지역문학이다. 지역문학사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문학을 대상으로 할 때에 비로소 문학사로서의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지역문학은 지금까지도 지역의 문학이라는 광의의 개념과 지역 출신 작가의 문학 작품 또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의 문학 작품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각각 사용된다. 물론 그 지역 구성원들의 삶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적 조건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차적 조건이었다. 그래서 지역문학의 개념에서는, 작가가 그 지역 출신 작가이거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이어야 한다는 지역적 조건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은, 그

2) 이에 대해서는, 이미 김병택, 「지역문학의 현실과 미래」 『한국문학과 풍토』(새미, 2002), pp. 93-96에서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논의의 초점을 지역문학사의 서술 대상 쪽으로 맞추었다.

작가의 문학 작품을 지역문학으로 인정하는 데에 작용한 중요한 근거였던 셈이다.

지역문학에 대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서울문학을 제외한 모든 지역문학은 서울문학에 비해 열등하다고 인식한다. 이것이 바로 지역문학이 처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다. 그러나 지역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21세기의 시대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의 활동은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지역문학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그리고 지역문학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지역문학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이 시대의 중대한 요청이다.

지역문학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 통용되던 지역문학의 개념에서 발견되는 난점은 지역문학의 지역적 조건과 내용적 조건이다. 지역적 조건은 그 지역 출신의 작가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의 문학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지역 출신의 작가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가 지역 주민의 삶이나 정서와 무관한 문학 작품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 구성원들의 삶과 정서를 반영한 문학 작품이어야 한다는 내용적 조건에도 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른 지역 출신의 작가가 창작한 그러한 문학 작품도 지역문학에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난점들은 장르 명칭과 그 장르의 작품 내용이 빈틈없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문학 이론의 상식으로 보면 치명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난점들을 고려할 때 지역문학의 개념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문학의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면,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지역문학은, 당연히 그 지역의 출신이거나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작가에 의해서만 창작이 가능할 터이므로, 앞에서 열거한 난점들이 일거에 해소된다. 그리고 서

올문학과 지역문학의 서열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의 연결 고리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에릭슨에 의하면 정체성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연속성·단일성·독자성·불변성과 그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이다.³⁾ 또한 정체성은 사람이 자라고 발전함에 따라 자신과 하나가 되는 존재감인 동시에, 또한 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하나가 되는 존재의 공동체 감각을 가진 친근감이다.⁴⁾

개인 정체성의 개념에 맞추면,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연속성·단일성·독자성·불변성이며, 지역의 특수성과 동체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학은 역사·지리·언어·민속·가치관·공동체 의식 등을 통한, 지역의 이러한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일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

‘지역문학은 민족문학이다.’라는 명제가 정합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역문학의 개념과 민족문학의 개념이 지향하는 바가 동일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문학의 개념은 앞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설정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민족문학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민족문학의 개념에는 복잡한 양상이 존재한다. 1910년부터 1948년까지에 이르는 국가 상실기의 민족문학의 개념과, 해방 이후부터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민족문학의 개념이 일단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공통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어느 시대의 민족문학도 그 시대가 다루어야 할 현실적, 역사적 경험을 다루었다는 점이 그것인데, 지역문학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민족문학의 개념은, 이러한 공통점에 토대를 두어 설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민족문학의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면, 민족문학의 개념에 내재된 문제는

3) Erik H. Erikson,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1968), p. 183.

4) Erik H. Erikson, *Identity : Dimension of a New Identity* (New York : W. W. Norton and Company, Inc., 1974), p. 27.

해결되지만,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의 개념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지역문학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작가에 의해 창작되는 지역문학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유지하고자 했던 현실적, 역사적 경험을 다루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당위적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과 지역 구성원을 포함하는 민족의 외연이 결합될 때에 지역문학은 진정한 민족문학이 될 수 있다.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은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문학이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보편성을 띠고 있는가의 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그 이데올로기가 보편성을 띠고 있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동시에 지역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이기도 하다.)의 전형적인 예이다.

지역문학사가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역문학은 이와 같은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이다.

Ⅲ.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닌 지역문학

1.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학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학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전통을 계승한다. 이와 함께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학은 다른 지역문학의 유익한 요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한 지역의 문학과 다른 지역의 문학은 상호 영향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학은 폐쇄적 문학이 아니라, 개방적 문학이다. 이 경우, 한 지역문학과 다른 지역문학의 우열을 논

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우수한 지역문학, 열등한 지역문학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과 전라도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은 우수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다를 뿐이다. 지역의 특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특색은 다르게 말해서 지역의 정체성이며, 그것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⁵⁾

첫째,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 나름대로의 정치적·경제적 조건, 환경·풍속·습관, 공동의 지역 심리와 언어가 있다. 그것들이 바로 각 지역의 특색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문학은 사회의 반영이므로, 문학이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 특유의 전통이 있다. 그것은 그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역사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문학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신화에는 제주도 신화를 다른 지역 신화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셋째,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 나름의 고유한 지역정신(기질)이 있다. 그것이 문학작품에서 발휘되면, 그 문학 작품은 다른 지역의 문학 작품과 구별되는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게 된다. 지역정신(기질)은 지역적 궁지·지역 감정·지역 심리상태·지역의 문화 교양, 그리고 오랫동안에 걸쳐 보편적으로 존재하게 된 공통성을 모두 포괄한다. 모든 작가는 이러한 지역정신과 기질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어떤 작가는 완전히 생소한 세계를 바라보는 경우에도, 자기 지역의 요소가 포함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문학에서의 지역적 특색, 즉 정체성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융합되어 이루어진다.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방식은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문학에는 그 지역 사회를 반영한 내용이 주류를 차지하게 마련이다. 각 지역의 제도·지리적 환경·풍토적 인심·생활 방식·

5) 侯健·劉鶴齡·許自強, 『문학이론 학습』, 임춘성 역 (제3문화사, 1989), pp. 128-131 참조.

복식·윤리적 관념과 정조·절개 등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 다를 터이므로, 그것을 드러내는 지역문학은 각각 다른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문학의 형식면에서 볼 때는, 지역마다 사용되는 상이한 방언이 가장 먼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문학이 언어 예술이라는 점, 그리고 언어가 지역적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2. 특수성을 지닌 지역문학

1) '개인의 발화'로서의 서정시와 상징되는 자연

디이터 람핑에 의하면, 암묵적인 것이건 또는 드러낸 것이건 간에, 전통적 서정시 이론에서의 근본적인 전제는, 서정시는 본질적으로 자기 발언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서정시가 본질적으로 개인적 발화, 즉 시인의 발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정시가 원칙적으로 시인의 주관적이고 표현적인 발화라는 점이다. 그러나 서정시를 자기 발언으로 특징짓는 데에는 또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서정시의 주관성을 서정시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 문제는 여러 종류의 목적적 서정시, 축시, 조시 등도 분명히 서정시이지만 주관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둘째는 서정시의 개인성을 서정시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것은 또한 시인이 전혀 말하지 않는 경우나 집단이 말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⁶⁾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서정시의 새로운 개념, 즉 서정시는 “어떤 다른 제약 없이 시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적 발화”라는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개념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시적 발화가 모든 발화의 강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특히 어떤 하

6) 디이터 람핑, 『서정시: 이론과 역사』, 장영태 역 (문학과지성사, 1994), pp. 98-99 참조.

나의 특정한 발화 대상 혹은 특정한 발화 방식에 따르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정시는 자유로운 시적 발화로 판단된다. 결국 독자는 얼마만큼의 시적 자유를 취하고 있는 어떤 텍스트가 서정적인 것인지 서정적인 것이 아닌지를, 그것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유의 정도에 따라서 그때마다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그러한 '서정적인 정도'가 채워지는 것인지는 결코 일률적으로 보편화시켜 확정될 수 없다. 그것은 일종의 평가 단계에서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⁷⁾

서정시가 이제 개인적 혹은 주관적인 발화로서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 속에는 언제나 '개인의 발화'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개인의 발화'는 서정시와 개성, 서정시와 주관성이 서로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서정적,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서정적인 것으로 말해지는 언어 행위의 경험적 다양성을 근접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서정시에 대한 전통적 규정과는 달리, 의미의 범주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⁸⁾

지역문학사가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서정시는, 이처럼 의미의 범주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서정시이다. 그런데 그 서정시에는 자연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그 자연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역사적·심리적 환경에서 형성된 자연이다. 따라서 모든 지역의 자연은 지역이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역사적, 심리적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수용된다. 다르게 말하면 자연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것들을 상징한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적, 심리적 환경은 시인으로 하여금 그 자연이 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지를, 왜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지를, 왜 그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근거이다.

7) 위의 책, pp. 100-101.

8) 위의 책, pp. 102-103.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자연만이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문학 작품에서의 자연은 보통 ① 만물을 뜻하는 우주, ② 초자연적인 것과 구별되는 감각과 지각의 세계, ③ 도시와 비교되는 시골, ④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것, ⑤ 부자연스런 것과 구별되는 자발적인 생성, ⑥ 생명력을 가진 것, ⑦ 신, ⑧ 사물 자체, ⑨ 인간의 본성 등 아홉 가지로 나뉘어 논의될 수 있는데,⁹⁾ 지역문학에서의 자연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연임을 인식하는 것도 지역문학사를 서술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2) 전체 · 문학으로서의 서사와 일반화되는 이야기

서사물, 서사 문학이라는 말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서사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고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사는 일차적으로 사건의 서술을 뜻한다. 서사의 형식은 다양하고 그것이 의존하는 매체 역시 그러하다. 즉 서사의 종류는 소설, 서사시, 극, 신화, 전설, 역사 등의 언어적 서사물 말고도 영화, 연극, 발레, 오페라 등의 비언어적 서사까지를 포괄한다. 그러나 이 말의 관례적 용법에서는 언어 매체에 의존하는 심미적 서사, 곧 문학적 서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서사의 필수불가결한 두 가지 요건은 사건들의 시간적 연쇄로 이루어진 이야기의 내용과 이야기의 서술을 담당하는 화자이다. 다시 말하면 서사는 사건이라는 내용과 서술하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다. 이 경우, 서술이란 전달 내용으로서의 이야기가 송신자(화자)로부터 수신자(독자)로 이전되는 소통 과정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설명적 산문, 사건 기사 등의 비문학적 서사와 영화 · 연극 등의 비언어적 서사는 서사적 범주에서 모두 제외된다.¹⁰⁾

지역문학에 나타나는 서사는 기본적으로 서사의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그것만으로 지역문학사의 중요한 서술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9) 고소웅, 「낭만주의」, 이선영 편 『문예사조사』 (민음사, 1990), p. 59.

10)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pp. 232-233.

가지 요건¹¹⁾을 더 갖추어야 한다.

첫째, 지역문학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역의 서사는 부분으로서의 서사가 아닌, 하나의 전체로서의 서사이어야 한다. 사건적 요소들 및 사물적 요소들 자체와, 그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서사물은 서로 다르다. 사건적 요소들이나 사물적 요소들은 고립적이며 불연속적인 반면, 서사물은 하나의 연속적인 구성체이다. 더군다나 그 서사물 속의 사건들은 상호 관련적이거나 상호수반적인 경향이 있다. 만일, 카테일 파티 석상에서 오고간 이야기들 중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추려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의 서사물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서사물의 사건들은 이미 정리된 것이며, 임의적인 사건들의 덩어리와는 다른, 뚜렷하게 유기적 조직체이다.

둘째, 지역문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역의 서사는 문학으로서의 서사, 즉 변형과 동시에 자기 규정(self-regulation)을 수반하는 구조적인 서사이어야 한다. 자기 규정은 구조가 그 자체로 지탱되고 완결되는 것, 하나의 구조 속에 내재된 변형들은 결코 그 체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언제나 그 체계에 속한, 그리고 그것의 법칙을 보존하는 요소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두 개의 완결된 숫자들을 더하거나 빼면 다른 완결된 숫자가 얻어지며, 그것은 완결된 숫자들로 이루어진 ‘덧셈군’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구조가 완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하나의 사건이 표현되는 과정은 그것이 변형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마치 언어학에서 심층구조 속에서의 어떤 요소가 표층적인 드러남을 위해서 변형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예를 들면, 작가가 인과적인 연속에 따라 사건들을 기술하거나 혹은 플래시백의 기법으로 그 연속을 뒤바꾸는 것 등—은 단지 어떤 경우에만 일어난다. 더구나 서사물은 그에 속하지 않거나 그것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건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상황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당장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적 요소나 사물적 요소들이 침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느 지점

11) S.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역 (고려원, 1990), pp. 26-27.

에서든 그 관련성은 나타나기 마련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서사물이 잘 짜여진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학사를 서술하는 사람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일반화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¹²⁾

허구적인 작품의 모든 문장이 허구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문장은 단순히 명확한 논리적인 진실을 기술하며, 말의 내포적 의미, 경험된 일반적 사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경험의 법칙—그것들이 보편적인 것인지 부분적인 것 인지와는 무관하게—혹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통상 제공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가정을 기술하기도 한다. “7은 가장 좋은 숫자이다”라든가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말은 소설 속의 인물에 의해 말해진다고 하더라도 진실인 것이다.¹³⁾

그러나 과학적 사실은 단지 일반화의 한 종류일 뿐이다. 적어도 19세기의 소설에서 보다 일반적인 것은 철학적 형태의 관찰들이며, 그것은 보다 불확정적인 방식으로 진실의 조건과 관련을 맺는다. 한 예로, 사람들은 텍스트의 어떤 부분에서 “사람은 항상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곤란을 겪을 사람에게는 절대로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터이다. “7은 가장 좋은 숫자이다”와는 달리 이러한 말들은 논박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과학적 세계보다는 오히려 수사학적 세계에 속한다. 현실 세계에서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서사물에서 그러한 말들이 적용될 가능성은,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진실성이 아닌, 허구적인 문맥 속에서의 적합성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적 일반화와 수사적 일반화는 동일한 근본적 기능, 이를테면 장식

12) 위의 책, pp. 147-148.

13) 위의 책, p. 297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 인용문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위의 책, pp. 297-299에 의거.

적이며 특별히 꺾진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약호들이 현실적인 외관을 갖출 만큼 충분히 확정적이지 못했을 때에,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많은 일반화와 논평들은 부지기수로 행해졌다. 그래서 임시로 주조된 표현이나 작가들 특유의 꺾진성은 보다 큰 힘을 발휘했다. 이처럼 이제 일반화는 매우 자의적인 것이 되었다.

쥬네트는 설명적인 일반화, 즉 화자가 그들에게 가르치거나 상기시켜야 하는 일반적인 법칙, 혹은 일시적인 생략 삼단논법은 논리적이거나 시적인 도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수사적인 것이므로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플롯의 어쩔 수 없는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서로 대립되는 각각의 진술들이 쉽사리 즐겨 수용되는 것도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일반화의 과도한 사용은 일반화의 기초인 사실성과의 적절한 일치를 역설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리얼리즘에서 필요로 하는 스타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자체의 정형화된 표현을 제공한다. 전통적 규범이란 항상 역사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IV. 에필로그

지금까지 지역문학사가 마땅히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할 문학을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학, 특수성을 지닌 지역문학으로 나누고, 그것들의 성격과 요건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학사가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역문학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이다. 그런데 그 지역

문학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유지하고자 했던 현실적, 역사적 경험을 다루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당위적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문학사가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역문학은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학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① 그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조건, 환경·풍속·습관, 공동의 지역 심리를 드러내는 문학, ② 그 지역의 전통을 드러내는 문학, ③ 그 지역의 지역정신과 기질을 드러내는 문학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지역문학사가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서정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문학은 서정시이다. 그것은 주로 '개인의 발화'로서의 서정시이며, 표면적으로 그 서정시는 주로 자연의 서정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 서정은 역사적·심리적 환경에서 형성된 자연의 서정이다.

넷째, 지역문학사가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서사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문학은 지역의 서사인데, 그것은 ① 전체로서의 서사, ② 문학으로서의 구조적 서사라는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학사를 서술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일반화하는 단계에서 이야기의 일반화 문제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